

서울市内一部 高等學校 學生들의 吸煙實態에 關한 調查研究

李 英 叔

—Abstract—

A Survey on Cigarette Smoking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Young Sook Lee

It is well known that smoking habit is hazardous to health, especially for juvenile.

The present study on smoking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has two major objectives.

The first objective is to find out the smoking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Toward this objective, individual's smoking experience has been examined as ever smoking and never smoking.

The second objective is to determine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ir smoking behavior at the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 levels.

For the data collection, the survey was carried out for the four high schools in Seoul from September 15 through October 15, 1982.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Smoking behavior of the students

1) Out of 1,278 respondents, 30.2% of them were found to be current smokers and 29.3% of them were former smokers.

This implies that around 60% of school students in Seoul have experienced smoking.

2) A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urrent smoking rates between two types of the school students were shown as 19.3% for day-time school and 42% for night-time school.

3) In terms of the current smoking behavior, the students who don't live with parents were higher in smoking rate than those of the living with parents.

2. Attitudes and knowledge about smoking

1) Attitudes of students toward smoking in high school days were shown that around 17% of them agreed with it and around 64% of them disagreed with it.

2) Around 99%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ir smoking is harmful for health.

A source of the information about negative effects of smoking on health was 'Radio and T.V.' (23.9%) as the most influential, 'school teacher' (20.9%), 'Newspaper' (18.2%) and so on.

3. Behavioral analysis for the current smokers

1) The factors affected for motivation in the first smoking were 'curiosity' (59.7%), 'temptation of friend' (19.7%), 'resistance feeling, (7.1%), 'merely interest and pleasure'

(6%) respectively.

2) The time of the first smoking was 'third grade of Junior-high school' (31.5%) as highest, 'first grade of Senior-high school' (23.7%) and 'second grade of Junior-high school' (14.7%).

3) An average daily number of cigarettes consuming of current smokers was seven cigarettes.

4. Family and school-mates influences on individual's smoking behavior

1) The data reveal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smoking and their parent's smoking behavior. Around 75% of the students whom both parents are smoking have experienced cigarette smoking.

It was found that the individual's smoking behavior was influenced by his sibling.

Around 65% of the students whom brothers are smoking have experienced cigarette smoking.

2) The 'Smoking-Index' of friendship network or a group explained individual's smoking behavior in the group. The result of dyad analysis of smoking behavior in the friendship network showed that a high score of 'Smoking-Index' tended to be explained an adoption of smoking behavior at the individual level in the group, on the other hand, a low score of 'Smoking-Index' explained non-smoking behavior in the group.

I. 序 論

1. 研究의 背景 및 必要性

1950年代以後 담배의 人體有害論이 많은 研究者들에 의해 活潑히 發表²³⁾되고 있으나 아직도 吸煙人口가 增加一路에 있는 것은 固有한 文化的 背景, 社會的 因習, 經濟的인 與件, 個人的 性格과 人生觀 등 여러 要因¹³⁾이 雜多하게 關聯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世界保健機構(W.H.O), 美國癌協會, 美國 保健教育 厚生省 등은 담배의 害毒에 關하여 널리 國民大衆에게 啓蒙하고 있으며, 吸煙과 健康에 關한 美國 保健處長의 報告(The Surgeon General's Report on Smoking and Health)가 1964년에 發表된 後 담배에 對한 論難이 더욱 深化되었다.²⁾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가 人體健康에 有害함에도不拘하고 專賣廳報告⁸⁾에 依하면 1980年 年間 담배 消費量이 700億개피에 이르고 있는 實情이며 "全國 製造煙草消費實態 調查報告書"에서는 全吸煙者의 19.3%가 이미 19歲 以前에 吸煙을 始作하였음이 報告¹⁵⁾되었다.

요즘 學校學生들의 頭髮과 校服의 漸次的인 自律化로 青少年들의 吸煙問題가 加一層 社會的 問題로 대두될 可能性이 보이는데 특히 頭髮의 自律化는 一部 學生들로 하여금 담배를 公開的으로 피울 수 있는 社會的 분위기를 느끼게 할 可能性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學生이기 때문에 吸煙을 해서는 안된다"는 單純한 強要的인 方法은 說得力이 없을 것이며, 吸煙實態에 關

한 基礎資料를 土臺로 새로운 學生指導方向이 樹立되지 않는 以上 學生들의 吸煙問題는 날로 深刻해져 갈 것이다.

青少年들이 吸煙을 하게 된 動機의 心理는 成年을 模倣하고 싶은 衝動과 더불어 誘惑的인 好奇心, 禁忌되어 있는 傳統的 傳團의 規範에서 脫出하고 싶은 反抗心理등이 複合的으로 作用한 것⁶⁾으로 생각된다.

특히 青少年期는 肉體的·精神的으로 成長期라는 點과 學業을 通하여 人格과 智慧를 쌓아가는 時期로서, 吸煙習慣이 固着되기 前 이 時期에 吸煙에 對한 올바른 教育과 指導를 해야함은 當然한 일이며, 이는 學校 學生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全體 國民健康向上에도 매우 意義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럼에도不拘하고 1976年度^{4,7)}以後 青少年, 특히 高等學校 學生들의 吸煙에 對한 研究가 別로 없었으며 그 實態와 對策에 對한 具體的 方案이 設定되지 못한 現時點에서 本 研究의 要求度는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2. 研究의 目的

本 研究의 一般的인 目的은 高等學校 學生들의 吸煙에 關한 經驗과 行爲, 吸煙하게 된 動機 및 吸煙과 關連된 要因을 分析함으로써 將來 學生들의 吸煙指導에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는데 있다. 이러한 一般的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樹立된 具體的인 目的은 다음과 같다.

가. 男子 高等學校 2學年生들의 吸煙經驗을 把握한다.

나. 吸煙에 對한 態度 및 吸煙과 健康에 對한 知識 程度를 測定한다.

다. 吸煙하는 學生들의 一般的인 吸煙實態를 把握한다.

라. 吸煙行爲에 어떤 要因들이 影響을 주는가에 對해 把握한다.

Ⅱ. 研究 方法

1. 調查對象選定 및 調查方法

서울 市內에 位置한 男子高等學校 中에서 第1次 標本單位로 4個校를 任意로 選定하여 이를 晝·夜間 各 各 2個校로 나누었다. 다음 第2次 標本單位로는 全學年中 2學年을 選定하였다. 最終標本單位로서는 各學校 2學年中, 晝間은 10개 學級中 6개 學級씩 單純無作爲로 抽出하였고, 夜間은 6個 學級 모두를 選定하여서 各 學級에 屬해 있는 모든 學生을 調查 標本對象으로 하였다. 이러한 標本抽出作業을 通하여 選定된 總對象 學生數는 1,370名이었으나 調查에 應答한 學生數는 1,278名이었다.

먼저 本 調查에 使用될 設問紙의 妥當性과 正當性을 事前에 檢定하기 爲하여 本 研究對象者와 關係없는 男子高等學校 學生 30名을 任意로 選拔하여 準備된 設問紙를 使用하여 事前 檢定하였다. 調查設問紙의 問項을 修正하기 爲한 作業으로서 各 問項의 內容傳達, 用語의 解釋 및 問項에 應答한 時間 등을 細密히 分析하여 그 結果 對象者의 一般的인 特性과 吸煙에 關한 事項을 알아보는 問項을 各 各 1項씩 添加하여 最終 調查設問紙로 確定하였다. 이렇게 하여 修正 補完된 設問紙는 1982年 9月 15日부터 同年 10月 15日까지 1個月間에 걸쳐 選定된 調查對象者에게 適用, 調查하였다. 調查對象者로부터 보다 正確한 應答를 얻기 爲하여 放課後 終禮時間을 利用하여 擔任教師가 없는 教室 氛圍氣에서 本 研究者가 直接 設問紙를 配付하고 各 質問에 對한 內容을 說明한 後, 各 應答者가 直接 無記名으로 記入토록 하였다.

2. 資料處理 및 分析

蒐集된 資料는 符號化한 다음, 穿孔作業과 誤謬資料의 修正作業을 거쳐 社會調查研究處理를 爲하여 考案된 電算프로그램(SPSS)을 利用하여 統計處理하였다.

分析內容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1) 調查對象者의 吸煙實態 (2) 吸煙에 對한 態度 및 吸煙과 健康에 對한 知識程度 (3) 吸煙者의 行爲分析 (4) 어떠한 要因들이 吸煙行爲에 影響을 주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吸煙行爲 關聯要因分析 등이다.

分析方法에 있어서 調查對象者들의 吸煙實態는 우선 全體 對象者의 吸煙率을 晝 夜間別로 比較하였으며, 또한 個人 特性別 吸煙率을 보기 爲해 年齡別, 晝 夜間 學生의 年齡別, 宗教別, 父母와의 同居與否別, 父母의 生存有無別로 算出하였다. 吸煙에 對한 態度 및 吸煙과 健康에 對한 知識程度는 吸煙經驗群과 非吸煙群을 百分率로 나타내어 比較하였다. 또한 兩群 사이의 統計的인 有意性을 χ^2 -檢定法으로 檢定하였다.

吸煙者의 行爲分析은 吸煙者들의 一般的인 吸煙狀態를 보는 것으로 各 項目을 百分率로 處理하였다.

吸煙行爲 關聯要因分析은 父母의 子女에 對한 關心 度別, 父母의 순위 兄弟의 吸煙狀態別, 飲酒經驗別, 學級內 成績과 大學進學與否別로 吸煙行爲를 보았으며, 끝으로 校友集團內의 吸煙程度가 個人의 吸煙行爲에 미치는 影響을 보기 爲해 '校友吸煙指數'를 使用하였다. '校友吸煙指數'開發에 對한 背景은 Homans²³⁾ (1950)의 集團理論에 依한 것인데 Homans는 "The Human Group"이라는 著書에서 「個人은 集團 속에서 마치 身體를 構成하고 있는 細胞와 類似한 것이므로, 細胞가 健康치 못하면 身體도 健康치 못하듯이, 病人 個人은 病人 社會를 만들고 病人 社會는 病人 個人을 만든다」라고 하였다. Homans의 集團理論을 吸煙問題에 適用해 보면 한 個人의 吸煙行爲는 적어도 그 個人이 屬해 있는 校友集團構成員들의 吸煙行爲와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理論의 假定下에 本 研究對象者를 個人別 校友關係를 나타내는 校友網(friendship network)으로 나누고 이 校友網 속에 吸煙을 하고 있는 사람數를 基礎로한 '校友吸煙指數'를 使用하였다. 그 計算方法은 다음과 같다.

校友吸煙指數 = $\frac{\text{個人校友網 속에 吸煙하고 있는 사람數}}{\text{個人校友網에 屬해 있는 全體 校友數}}$

이 '校友吸煙指數'를 通하여 校友間의 吸煙程度가 個人의 吸煙行爲에 얼마나 影響을 주고 있는가를 分析하였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應答者의 心理的인 面을 考慮하여 校友들의 假名을 記入토록 했으므로 各 校友들간의 廣範圍한 校友間 吸煙網(Interpersonal smoking network)은 알지 못하고 다만 두 學生 사이의 影響面을 分析(dyad-analysis)한 接近方法을 使用하였기에 個人이 屬해 있는 集團全體 속의 影響을 分析하는 側面에서는 本 研究의 制限點이 있다.

Ⅲ. 調查成績 및 考察

1. 調查對象者의 吸煙實態

1) 吸煙水準

表 1-1. 對象者의 吸煙經驗率

區 分	No.	%
吸煙 經驗者	761	59.5
現在 吸煙者	(386)	(30.2)
過去 吸煙者	(375)	(29.3)
非 吸煙者	517	40.5
計	1,278	100.0

① 對象者의 吸煙經驗率

本 調查의 總 應答者는 ‘吸煙經驗者’와 ‘非吸煙者’로 分類하였으며, ‘吸煙經驗者’는 ‘現在吸煙者’와 ‘過去吸煙者’로 區分하였다, ‘現在吸煙者’는 過去에는 勿論 現在에도 繼續 吸煙하고 있는 경우이며, ‘過去吸煙者’는 過去에 吸煙해 본 經驗이 있으나 現在는 吸煙하지 않는 경우이고, ‘非吸煙者’는 전혀 吸煙해 본 經驗이 없는 學生을 意味한다.

本 調查의 總 應答者 中 半數 以上이 吸煙經驗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吸煙經驗率은 59.5%였다. 現在 吸煙하고 있는 學生은 全體 調查對象者 가운데 30.2%를 ‘過去吸煙者’는 29.3%를 各各 차지하고 있다 <表 1-1 參照>.

한편 趙¹¹⁾(1973)의 研究에서 밝혀진 現在 吸煙하고 있는 學生 26.5%와 閔과 李⁴⁾(1976)의 調查結果에서 나타난 18歲 以下 青少年의 吸煙率 32.2%를 本 調查結果와 比較해 보면 年度別 差異를 勘案해 볼 때 本 調查의 現在 吸煙率 30.2%는 큰 變動이 없었던 것으로 解釋된다.

② 晝·夜間別 吸煙經驗率

學生들의 吸煙狀態에 있어서 差異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要因들이 作用하겠으나 特히 學生들이 學校를 晝間에 다니느냐 夜間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各各 學校가 갖는 特性 때문에 吸煙率에 큰 差異가 있으리라 假定

하여 本 調查에서는 晝·夜間別로 吸煙經驗率을 알아 보았다.

<表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晝·夜間別 吸煙率 差異는 晝間보다 夜間에 있어서 吸煙經驗者가 越等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即 吸煙經驗率이 晝間의 경우는 49%, 夜間의 경우는 71%였고, 現在 吸煙者는 晝間의 경우 19.3%, 夜間의 경우는 42%로서 夜間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晝·夜間間의 吸煙率의 큰 差異는 晝·夜間 學生들의 年齡構造에 影響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兩集團의 年齡을 標集化시켜 吸煙經驗率을 구해 보았다. 晝間 學生의 年齡構造를 標準으로 하여 夜間의 現在 吸煙率을 計算한 結果, 그 水準이 40.9%로서 標準化하기 前의 42%보다는 多少 減少되었으나 여전히 晝間보다는 높은 것을 볼 때 夜間學生들이 吸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個人 特性別 吸煙經驗率

① 年齡別 吸煙經驗率

Salber³³⁾(1961)의 調查研究에 依하면 青少年의 吸煙行爲는 年齡과 有意의인 相關關係가 있음을 發表한 바 있어 本 調查에서도 한 學年內의 年齡差異에 따른 吸煙經驗率이 다를 것으로 假定하여 年齡을 獨立變數로 使用하였다.

調查對象 學生들의 平均年齡은 17.9歲였는데, 이 年齡을 基準으로 해 볼 때 年齡이 높아짐에 따라 學生들의 吸煙經驗도 增加하는 傾向을 보였다<表 1-3 參照>. 各 年齡別로 보면 15, 16歲에서는 吸煙經驗率이 各各 50%였고, 17歲에서 54.9% 그리고 學生들의 平均年齡보다 높은 18歲에서는 58.8%, 19歲에서는 75.5%, 20歲에서는 80%로 年齡上昇에 따른 吸煙率의 增加가 顯著히 나타났다.

② 晝·夜間 學生의 年齡別 吸煙經驗率

表 1-2. 晝·夜間 學校別 吸煙經驗率

晝·夜 間 別	晝 間		夜 間		年齡標準化率*	
	No.	%	No.	%	晝間	夜間
					%	%
吸煙 經驗者	327	49.0	434	71.0	49.0	70.5
現在 吸煙者	(129)	(19.3)	(257)	(42.0)	(19.3)	(40.9)
過去 吸煙者	(198)	(29.7)	(177)	(29.7)	(29.7)	(29.6)
非 吸煙者	340	51.0	177	29.0	51.0	29.5
計	667	100.0	611	100.0	100.0	100.0

* 晝間 學生 667名을 標準人口로 한 年齡 標準化率임. p<0.01

表 1-3. 年齡別 吸煙經驗率

年 齡	15		16		17		18		19		20	
	No.	%	No.	%	No.	%	No.	%	No.	%	No.	%
吸煙 經驗者	1	50.0	9	50.0	158	54.9	494	58.8	83	75.7	16	80.0
現在 吸煙者			(3)	(16.7)	(72)	(25.0)	(249)	(29.6)	(52)	(47.3)	(10)	(50.0)
過去 吸煙者	(1)	(50.0)	(6)	(33.3)	(86)	(29.9)	(245)	(29.2)	(31)	(28.2)	(6)	(30.0)
非 吸煙者	1	50.0	9	50.0	130	45.1	346	41.2	27	24.5	4	20.0
計	5	100.0	18	100.0	288	100.0	840	100.0	110	100.0	20	100.0
Mean age=17.9	S.D.=0.65		p<0.01									

表 1-4. 晝·夜間 學生의 年齡別 吸煙經驗率

年齡	晝			間		夜			間	
	現在*	過去	非	小	計	現在*	過去	非	小	計
	吸煙率	吸煙率	吸煙率			吸煙率	吸煙率	吸煙率		
				No.	%				No.	%
15	—	100.0	—	1	100.0	—	—	100.0	1	100.0
16	20.0	20.0	40.0	5	100.0	15.4	38.5	46.1	13	100.0
17	17.2	30.6	52.2	157	100.0	35.2	28.2	36.6	131	100.0
18	19.7	28.3	52.0	471	100.0	42.0	30.6	27.4	369	100.0
19	20.7	44.8	34.5	29	100.0	56.8	22.2	21.0	81	100.0
20	50.0	50.0	—	4	100.0	50.0	25.0	25.0	16	100.0
計	19.3	29.7	51.0	667	100.0	42.0	29.0	29.0	611	100.0

* p<0.05

晝·夜間 學生들의 年齡分布와 各 年齡에 對한 吸煙 經驗率을 調査해 본 結果 <表 1-4>와 같다. 晝間과 夜間의 年齡分布를 보면 調査對象者들의 原則的인 年齡인 18歲를 넘어선 19, 20歲가 夜間에서 越等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各 年齡에 있어서 現在 吸煙率을 晝·夜間別로 比較해 보면 夜間의 現在 吸煙率이 晝間보다 높은 傾向을 보이고 있다. 晝間의 경우, 各 年齡別 現在 吸煙率은 16歲에는 20%, 17歲에는 17.2%, 18歲(19.7%), 19歲(20.7%), 20歲(50%)로 나타났고, 夜間의 경우 各 年齡別 現在 吸煙率은 16歲에서 15.4%, 17歲(35.2%), 18歲(42%), 19歲(56.8%), 20歲(50%)로 나타나 같은 年齡에서도 夜間의 現在 吸煙率이 晝間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夜間의 경우 원래 學年의 年齡보다 나이가 많은 學生들이 많으므로 「年齡이 높아질수록 吸煙하는 傾向이 增加한다」는 앞에서 밝혀진 事實에 一致되는 結果를 보인 것으로 思料된다. 일찌기 Horn²⁶⁾(1959)은 원래 學年의 年齡보다 나이가 많은 學生들의 경우 吸煙 行爲가 높다고 報告한 바 있어 本 調査結果는 美國의 例와도 一致됨을 알 수 있다.

③ 宗教別 吸煙經驗率

吸煙問題에 있어서 특히 宗教는 學生들로 하여금 吸煙을 안하도록 하는데 매우 重要한 要因이 되리라 생각되어 本 調査에서는 個人의 特性中 宗教의 有無에 따른 吸煙經驗率을 알아 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表 1-5 參照>.

宗教의 有無에 따른 吸煙經驗을 보면 宗教가 없는 경우 吸煙經驗率이 越等히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宗教가 없는 경우의 吸煙經驗率은 72.9% 이 中 現在 吸煙率은 41.4%였으며 宗教가 있는 경우의 吸煙經驗率은 47.6%, 이 中 現在 吸煙率은 20.3%로서 宗教가 없는 경우의 吸煙率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宗教別로 살펴보면 各 宗教間의 吸煙率은 서로 비슷한 水準을 보였다.

한편 Lanese²⁷⁾(1972)의 研究에 依하면 基督教의 경우 吸煙率이 17.8%, 天主教의 경우는 25.2%, 유대교가 33.3%, 宗教가 없는 경우의 吸煙率은 27.9%로서 宗教의 有無에 따라 吸煙率에는 큰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本 調査結果와는 다른 傾向을 보였다.

④ 父母와의 同居與否에 따른 吸煙經驗率

父母와의 同居與否에 따른 吸煙經驗率은 <表 1-6>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父母와 함께 있는 경우보다는 父

表 1-5. 宗教別 吸煙經驗率

區 分	有										無	
	基 督 教		天 主 教		佛 教		其 他		小 計		No.	%
	No.	%	No.	%	No.	%	No.	%	No.	%		
吸煙 經驗者	233	46.6	21	40.4	65	56.0	3	37.5	322	47.6	439	72.9
現在吸煙者	(94)	(18.8)	(7)	(13.5)	(36)	(31.0)	(2)	(25.0)	(137)	(20.3)	(249)	(41.4)
過去吸煙者	(139)	(27.8)	(14)	(26.9)	(29)	(25.0)	(1)	(12.5)	(185)	(27.3)	(190)	(31.5)
非 吸煙者	267	53.4	31	59.6	51	44.0	5	62.5	354	52.4	163	27.1
計	500	100.0	52	100.0	116	100.0	8	100.0	676	100.0	602	100.0

p<0.01

表 1-6. 父母와의 同居與否에 따른 吸煙經驗率

區 分	父母와 함께 自宅		父母와 떨어져서 自宅		親戚·下宿·自炊	
	No.	%	No.	%	No.	%
吸煙 經驗者	669	57.6	42	77.8	50	79.4
現在 吸煙者	(348)	(27.6)	(25)	(46.3)	(29)	(46.0)
過去 吸煙者	(321)	(30.0)	(17)	(31.5)	(21)	(33.4)
非 吸煙者	492	42.4	12	22.2	13	20.6
計	1,161	100.0	54	100.0	63	100.0

p<0.01

表 1-7. 父母의 生存有無別 吸煙經驗率

區 分	모 두 生 存		아버지만 生存		어머니만 生存		모 두 死 亡	
	No.	%	No.	%	No.	%	No.	%
吸煙 經驗者	693	59.5	12	70.6	54	60.0	2	100.0
現在 吸煙者	(358)	(30.6)	(6)	(35.3)	(22)	(24.4)	(2)	(100.0)
過去 吸煙者	(335)	(28.9)	(6)	(35.3)	(32)	(35.6)	—	—
非 吸煙者	476	40.5	5	29.4	36	40.0	—	—
計	1,169	100.0	17	100.0	90	100.0	2	100.0

p>0.05

母와 떨어져 있는 경우 吸煙하는 傾向이 높게 나타났다.

「親戚이나 下宿 또는 自炊」를 하고 있는 경우에 吸煙經驗率이 가장 높아 79.4%였고, 「父母와 떨어져서 自宅」에서 사는 경우에는 77.8%인 反面에 「父母와 함께 自宅」에서 사는 경우는 57.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위의 結果로 보아 學生들이 父母와 함께 사는 경우 보다는 父母와 떨어져 사는 경우 即 父母의 保護로부터 벗어난 경우에 特히 吸煙하는 일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⑤ 父母의 生存有無別 吸煙經驗率

〈表 1-7〉은 父母의 生存有無에 따른 學生들의 吸煙狀態를 본 것이다. 父母가 모두 生存해 있는 경우 보다는 偏父母이거나 모두 死亡한 경우 吸煙經驗率이 增加하는 現象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父母가 「모두 死亡」한 경우는 100% 現在 吸煙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만 生存」한 경우에는 吸煙經驗率이 70.6%, 「어머니만 生存」한 경우는 吸煙經驗率이 60%, 父母 모두 生存의 경우는 吸煙經驗率이 59.5%였다. 이러한 結果로 미루어 보면 父母와 同居與否에 따른 學生의 吸煙行爲와 父母의 生存與否에 따른 影響은 다같이 學生의 吸煙에 비슷한 樣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崔와 朴¹⁴⁾(1980)의 研究에서는 「父母 모두 死

表 2-1 未成年期 吸煙에 對한 態度

未成年期 吸煙에 對한 態度	吸煙 經驗 群		非 吸煙 群		計	
	No.	%	No.	%	No.	%
肯 定 的	185	24.3	38	7.4	223	17.4
否 定 的	406	53.4	416	80.5	822	64.3
잘 모 르 겠 다	170	22.3	63	12.1	233	18.3
計	761	100.0	517	100.0	1,278	100.0

p<0.01

表 2-2. 吸煙許容時期에 對한 態度

吸煙許容時期	吸煙 經驗 群		非 吸煙 群		計	
	No.	%	No.	%	No.	%
高等學校 時節	171	22.5	25	4.8	196	15.3
高卒後나 大學時節	378	49.7	222	42.9	600	46.9
大學卒業後	151	19.8	168	32.5	319	25.0
吸煙許容안함	61	8.0	102	19.8	163	12.8
計	761	100.0	517	100.0	1,278	100.0

p<0.01

亡한 경우의 吸煙率이 가장 높아 55%였고, 「偏父母」의 경우는 吸煙率이 45.2%였으며, 「모두 生存」한 경우는 吸煙率이 19.4%로 나타나 本 調査結果를 支援하고 있다.

2. 吸煙에 對한 態度 및 吸煙과 健康에 對한 知識 程度

1) 未成年期 吸煙에 對한 態度

調査對象者들의 未成年期 吸煙에 對한 態度는 肯定的인 態度보다는 否定的인 態度를 보인 學生이 높게 나타나 統計의으로도 매우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表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未成年期 吸煙에 對해 否定的인 態度를 보인 學生이 가장 많아 64.3%였고, 肯定的인 態度를 보인 學生은 17.4%에 불과하였다. 또한 吸煙經驗群內에서도 否定的인 態度를 보인 學生이 가장 많아 53.4%인 것을 볼 때 學生 스스로는 未成年期 吸煙에 對해 否定的인 態度를 보이면서 實際 行爲 上으로는 現在 吸煙하는 學生이 30.2%나 되는데 問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吸煙에 對한 態度와 行爲間의 差異는 吸煙하는 動機와 關聯되고 있어 吸煙을 願치 않으면서도 校友集團의 雰圍氣에 따라 吸煙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2) 吸煙許容時期에 對한 態度

應答者들이 吸煙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時期로는

〈表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高卒後나 大學時節」이 가장 많아 46.9%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統計의로도 매우 有意하였다(p<0.01). 또한 吸煙經驗群과 非 吸煙群을 比較해 보면 「高等學校時節」의 吸煙을 許容하는 學生이 吸煙經驗群에서 22.5%, 非吸煙群에 4.8%로서 吸煙經驗群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吸煙經驗群에서도 77.5%의 學生이 「高等學校 時節」의 吸煙에 대해 否定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未成年期 吸煙에 對해 肯定的인 態度를 보인 學生이 17.4%였고 「高等學校 時節」을 吸煙許容時期로 본다는 學生이 15.3%인 것을 볼 때 그 結果가 서로 비슷한 水準을 보였다.

3) 禁煙教育 經驗과 將來 禁煙教育 必要性에 對한 態度

禁煙教育을 받은 經驗이 있는 學生이 禁煙教育을 받지 않은 學生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禁煙教育 經驗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禁煙教育에 對해 否定的인 態度를 보인 경우가 거의 半數로 나타났다(表 2-3 參照).

事前에 禁煙教育에 對한 經驗이 있는 學生中에서 將來의 禁煙教育이 「꼭 必要하다」고 應答한 48.2%를 除外한 나머지 51.8%는 將來 禁煙教育에 대하여 否定的인 態度를 보였으며 禁煙에 對한 既存의 教育이 充分한 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表 2-3. 禁煙教育經驗有無의 將來 禁煙教育 必要性에 對한 態度

區 分	吸 煙 經 驗 群		非 吸 煙 群		計	
	No.	%	No.	%	No.	%
禁煙教育經驗있다*						
꼭 必要하다	271	35.6	184	35.6	455	35.6(48.2)
必要性 別로 없다	247	32.5	140	27.1	387	30.3(41.0)
不必要하다	58	2.6	44	8.5	102	8.0(10.8)
小 計	576	75.7	368	71.2	944	73.9(100.0)
禁煙教育經驗없다						
꼭 必要하다	97	12.7	78	15.1	175	13.7(52.4)
必要性 別로 없다	73	9.6	50	9.7	123	9.6(36.8)
不必要하다	15	2.0	21	4.0	36	2.8(10.8)
小 計	185	24.3	149	28.8	334	26.1(100.0)
計	761	100.0	517	100.0	1,278	100.0

p>0.05

表 2-4. 教師의 吸煙에 對한 學生의 反應

教師의 吸煙에 對한 反應	吸 煙 經 驗 群		非 吸 煙 群		計	
	No.	%	No.	%	No.	%
吸煙하고 싶은 衝動생긴다	224	29.4	16	3.1	240	18.8
吸煙하고 싶은 衝動안생긴다	58	7.6	26	5.0	84	6.6
無關心하다	376	49.4	291	56.3	667	52.2
禁煙하기 願한다	103	13.6	184	35.6	287	22.4
計	761	100.0	517	100.0	1,278	100.0

p<0.01

4) 教師의 吸煙에 對한 學生의 反應

教師의 吸煙行爲는 學生들에게 어떤 影響을 주며 學生들이 받아들이는 反應도 吸煙經驗群과 非吸煙群 사이에 差異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教師의 吸煙에 對한 學生의 反應을 알아 보았다. <表 2-4>를 통해 보면 教師가 吸煙하는 경우 「無關心하다」가 가장 많아 52.2%였고, 「禁煙하기 願한다」는 學生이 22.4%로 나타나 一般적으로 教師의 吸煙에 對한 態度는 큰 反應을 보이지 않는것으로 解釋된다(p<0.01). 그러나 吸煙經驗群과 非吸煙群을 比較해 보면 教師가 吸煙하는 경우 學生도 「吸煙하고 싶은 衝動이 생긴다」고 한 學生이 吸煙經驗群에서 29.4%, 非吸煙群에서 3.1%로서 教師의 吸煙이 吸煙經驗群에게 더욱 커다란 衝動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다. 反面에 吸煙經驗群 보다는 非吸煙群에서 教師가 禁煙하기를 더 많이 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ezer³²⁾(1964)는 教師의 吸煙習慣과 態度가 學生들

의 吸煙行爲에 影響을 준다고 하였고, Chen과 Rakip¹⁸⁾(1975)은 教師가 學生들에게 禁煙教育을 實施할 때 吸煙하는 教師는 消極적으로 學生들의 禁煙教育을 指導하고 있으며, 教師가 吸煙을 中斷한 경우 가장 積極적으로 學生들에게 禁煙教育을 實施한다고 報告한 바 있다.

本 調査結果 教師들의 過半數 以上の 學生群(52.2%)이 無關心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8.8%가 담배 피우고 싶은 衝動을 느낀다는 事實을 두고 볼 때 校內에서 特別히 講義中에는 教師가 禁煙하는 것이 學生禁煙指導에 有益하리라 생각된다.

5) 吸煙하는 學生에 對한 學校의 團束要求度

吸煙하는 學生들에 對해 學校의 嚴格한 團束을 願하고 있는 學生이 가장 많아 49.4%로 나타났다(p<0.01).

이를 吸煙經驗群과 非吸煙群으로 나누어 比較해 보면 <表 2-5>에서 본 바와 같이 吸煙하는 學生에 對하

表 2-5. 吸煙하는 學生에 對한 學校의 團束要求度

學校의 團束要求度	吸煙 經驗 群		非 吸煙 群		計	
	No.	%	No.	%	No.	%
嚴格히 團束해야 한다	276	36.3	355	68.7	631	49.4
團束할 必要는 別로 없다	342	44.9	138	26.7	480	37.6
團束하지 말아야 한다	143	18.8	24	4.6	167	13.0
計	761	100.0	517	100.0	1,278	100.0

p<0.01

表 2-6. 吸煙의 人體有害性 認知與否 및 知識源

吸煙의 人體有害性 認知與否	吸煙 經驗 群		非 吸煙 群		計	
	No.	%	No.	%	No.	%
有害하다						
新 聞	137	18.0(18.3)	92	17.8(17.9)	229	17.9(18.2)
Radio, T.V.	180	23.7(24.2)	121	23.4(23.6)	301	23.6(23.9)
書 籍	123	16.2(16.5)	77	14.9(15.0)	200	15.6(15.9)
親 舊	19	2.5(2.5)	8	1.5(1.6)	27	2.1(2.1)
家 族	23	3.0(3.0)	23	4.4(4.4)	46	3.6(3.6)
學 校 教 師	149	19.6(19.9)	115	22.3(22.4)	264	20.7(20.9)
잘 모 르 겠 다	117	15.3(15.6)	77	14.9(15.1)	194	15.2(15.4)
小 計	748	98.3(100.0)	513	99.2(100.0)	1,261	98.7(100.0)
無害하다	13	1.7	4	0.8	17	1.3
計	761	100.0	517	100.0	1,278	100.0

p>0.05

여 學校가 嚴格한 團束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學生은 非吸煙群에서 더 많았고, 學校의 團束을 反對하는 學生은 亦是 吸煙經驗群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問題는 現在 吸煙하는 學生의 率 30.2%보다 吸煙團束에 대한 否定的인 態度를 보이는 學生의 率이 훨씬 높은 50.6% 水準을 보이고 있는 點이다. 勿論 그렇다고 해서 向後 반드시 吸煙率이 增加하리라고 볼 수는 없으나 學生들의 禁煙에 對한 認識이 過去와 같은 絶對的인 禁已現象에서 相對的으로 緩和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憂慮를 할 수 있을 것이다.

6) 吸煙의 人體有害性 認知與否 및 知識源

吸煙이 人體에 有害하다고 알고 있는 學生은 98.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人體에 無害한 것으로 알고 있는 學生은 1.3%에 不過하였다(表 2-6 參照).

吸煙이 人體에 有害하다고 應答한 學生의 知識源으로는 「Radio, T.V.」가 가장 많아 23.9%였고, 「學校 선생님」이 20.9%, 「新聞」(18.2%), 「書籍」(15.9%)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吸煙經驗群과 非吸煙群 사이에서

도 各各 같은 順이었다.

Kelson²⁶⁾(1975)의 研究에서는 吸煙이 人體에 「有害하다」고 應答한 學生이 91%로서 本 調査의 結果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趙¹¹⁾(1973)는 人體有害성에 관한 知識經路에서 「學校 선생님」이 42.6%로 가장 많았고, 「新聞」(22.1%), 「Radio」와 「雜誌」(各各 14.5%), 「教會」(6.4%)의 順으로 報告하였다.

7) 담배의 人體有害成分에 對한 知識程度

담배가 人體에 有害하다고 應答한 1,261名에 對해 「담배煙氣 속에는 어떤 有害成分이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質問을 通해 얻은 結果는 <表 2-7>과 같다.

담배가 人體에 有害하다고 應答한 1,261名中 담배의 人體有害成分에 대해 具體的으로 알고 있는 學生이 71.8%로 나타났으며 그中 「니코틴」 하나만을 알고 있는 경우가 82.9%로 가장 많았다(p<0.01).

한편 吸煙經驗群과 非吸煙群을 比較해 보면 담배의 人體有害成分에 對해 알고 있는 學生이 吸煙經驗群에서 66.5%, 非吸煙群에서 79.7%로 非吸煙群의 경우 담

表 2-7. 담배의 人體有害成分에 대한 知識程度

담배의 人體有害成分	吸煙 經驗 群		非 吸 煙 群		計	
	No.	%	No.	%	No.	%
안 다						
니 코 틴	416	55.6(83.5)	336	65.5(82.2)	752	59.6(82.9)
타 르	1	0.1(0.2)	0	— —	1	0.1(0.2)
一酸化炭素	6	0.8(1.2)	7	1.4(1.7)	13	1.0(1.4)
發 癌 物 質	10	1.3(2.0)	4	0.8(1.0)	14	1.1(1.5)
上記成分中 2 가지	58	7.8(11.6)	51	9.9(12.5)	109	8.6(12.0)
上記成分中 3 가지	7	0.9(1.4)	11	2.1(2.6)	18	1.4(2.0)
小 計	498	66.5(100.0)	409	79.7(100.0)	907	71.8(100.0)
모른다	250	33.5	104	20.3	354	28.2
計	748	100.0	513	100.0	1,261*	100.0

* 吸煙이 人體에 無害하다고 應答한 17名은 除外. $p < 0.01$

表 2-8. 吸煙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知識

吸煙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에 對한 知識	吸煙 經驗 群		非 吸 煙 群		計	
	No.	%	No.	%	No.	%*
안 다						
呼吸器系疾患**	460	52.3(85.8)	375	61.8(85.0)	835	56.2(85.5)
胃腸管疾患	12	1.4(2.2)	13	2.1(2.9)	25	1.7(2.6)
肝 臟 疾 患	47	5.3(8.8)	33	5.4(7.5)	80	5.4(8.2)
心 臟 疾 患	7	0.8(1.3)	11	1.8(2.5)	18	1.1(1.8)
其 他	10	1.1(1.9)	9	1.5(2.1)	19	1.2(1.9)
小 計	536	60.9(100.0)	441	72.6(100.0)	977	65.6(100.0)
모른다	344	39.1	166	27.4	510	34.4
計	880	100.0	607	100.0	1,487	100.0

* 1人 1答 以上으로 應答總數에 대한 %임. $p < 0.01$

** 肺結核, 氣管支炎, 肺癌, 喘息, 肺炎, 肺氣腫 包含.

배의 人體有害成分에 관한 知識度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니코틴·타르·一酸化炭素·發癌物質中 2가지 혹은 3가지나 알고 있는 學生도 非吸煙群에서 多少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鄭⁹⁾(1980)은 담배煙氣 속에 여러 有害成分이 있음을指摘하면서 人體에 害로운 物質로서는 니코틴, 타르, 一酸化炭素를 言及하고 있다. 또 害를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 物質은 酸化窒素(nitric acid), 二酸化窒素(nitrogen dioxide), 石炭酸(phenol), 市안化水素(hydrocyanic acid), 크레졸(cresol), acrolein 등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또 Wynder³⁹⁾(1963)는 담배煙氣 中에서 가장 強力한 發癌物質인 benzopyrene이 있음을指摘하였다.

8) 吸煙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에 對한 知識

知識은 態度形成에 큰 影響을 주고 또한 行動의 原因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教育의 意義가 強調되고 있다. 특히 保健教育은 우리의 健康과 關聯되는 知識을 옳은 行動으로 實踐하게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吸煙經驗群과 非吸煙群의 吸煙이 人體에 有害한 內容에 對한 知識度를 比較하여 보는 것이 意義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吸煙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에 對한 知識程度는 <表 2-8>과 같이 具體的인 疾病名을 알고 있는 學生이 높게 나타나 65.6%였고, 疾病名을 알고 있는 경우는 85.

表 2-9. 吸煙과 頭腦活動과의 關係에 대한 知識

區 分	吸 煙 經 驗 群		非 吸 煙 群		計	
	No.	%	No.	%	No.	%
低 下 시 킨 다	592	77.8	440	85.1	1,032	80.0
促 進 시 킨 다	16	2.1	4	0.8	20	1.6
無 關 하 다	38	5.0	11	2.1	49	3.8
잘 모 르 겠 다	115	15.1	62	12.0	177	13.8
計	761	100.0	517	100.0	1,278	100.0

p<0.01

表 2-10. 吸煙과 壽命의 關係에 대한 知識

區 分	吸 煙 經 驗 群		非 吸 煙 群		計	
	No.	%	No.	%	No.	%
短 縮 시 킨 다	593	77.9	444	85.9	1,037	81.1
延 長 시 킨 다	11	1.4	1	0.2	12	0.9
無 關 하 다	53	7.0	20	3.9	73	5.7
잘 모 르 겠 다	104	13.7	52	10.0	156	12.3
計	761	100.0	517	100.0	1,278	100.0

p<0.01

5%가 呼吸器系 疾患에 대해 알고 있었다(p<0.01).

吸煙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兩群의 知識度를 比較해 보면 吸煙群의 경우 吸煙이 人體에 미치는 疾病에 대해 알고 있는 學生이 60.9%였고, 非吸煙群의 경우는 72.6%로서 非吸煙群의 知識度가 높게 나타났다. 兩群 모두는 呼吸器系 疾患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肝臟疾患, 胃臟管疾患의 順序로 나타났다.

崔와 朴¹⁴⁾의 調査에서는 吸煙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에 대해 肺癌誘發이 가장 많았고, 肝臟疾患, 口腔疾患의 順序로 나타나 本 研究과 비슷한 樣相을 보였다.

朴⁵⁾(1978)에 依하면 近年에 와서 肺癌 以外에 癌腫으로 因한 死亡率은 漸次 減少하는데 비해 肺癌으로 인한 死亡率은 높으며 吸煙者에게서 肺癌發生이 높음을 指摘하였다.

또한 吸煙은 消化不良, 慢性腸炎, 消化性 潰瘍, 肺癌, 慢性氣管支炎, 喘息, 肺氣腫, 動脈硬化性 心臟疾患, 狹心症, 血栓症 以外에 喉頭·口腔·食道癌, 肝硬變症 등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Seely³⁵⁾(1971) 등은 靑少年期の 吸煙이 肺機能에 損傷을 주고 있다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

9) 吸煙과 頭腦活動과의 關係에 對한 知識

吸煙과 頭腦活動과의 關係에 대한 知識程度는 <表 2-9>에서와 같이 吸煙經驗群과 非吸煙群間에 매우 有

意한 差를 보였다(p<0.01).

吸煙이 頭腦活動을 「低下시킨다」고 正答을 한 學生은 全體對象學生의 80.8%로 比較的 높게 나타났고, 이를 吸煙經驗群과 非吸煙群으로 나누어 比較해 볼때 吸煙經驗群에서는 77.8%, 非吸煙群에는 85.1%로 非吸煙群의 知識水準이 높게 나타났다.

吸煙이 頭腦活動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他 調査를 보면 Salber³⁴⁾(1968)는 智能指數가 낮은 群에서 吸煙率이 높다고 하였고, 朴⁵⁾(1978)은 吸煙과 精神效能의 關係에서 Vermont大學의 Bush 教授의 調査結果, 吸煙을 하면 表現力, 知覺, 聯想이 다같이 10% 低下한다고 報告하였고, Antioch大學의 Earp教授는 담배피우는 學生이 獎學金 받는 率이 낮다고 指摘하고 있다. 위와 같은 調査結果로 보아 吸煙이 頭腦活動을 低下시키는데 影響을 주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10) 吸煙과 壽命과의 關係에 대한 知識

吸煙과 壽命과의 關係에 대한 知識은 吸煙經驗群과 非吸煙群 사이에 매우 有意한 差로 보였으며(p<0.01), 吸煙이 壽命을 短縮시키는 要因이 된다고 옳게 알고 있는 學生이 81.1%로 나타났다(<表 2-10>).

한편 吸煙經驗群과 非吸煙群을 比較해 보면, 吸煙이 壽命을 「短縮시킨다」고 應答한 學生이 吸煙經驗群에서 77.9%, 非吸煙群에서 85.9%로 나타나 非吸煙群의 知

識水準이 높게 나타났다.

Taylor³⁷⁾(1963)는 日常生活에서 過飲, 過食, 運動不足 그리고 吸煙이 人間の 壽命을 短縮시킨다고 했고 Hawthorne²²⁾(1978)은 吸煙과 死亡率에 대한 研究報告에서 壽命의 短縮度와 吸煙量이 比例한다고 밝혀 吸煙이 壽命을 短縮시킨다는 것을 強調하였다. 또한 Bower¹⁷⁾(1964)에 依하면 1日 20개피의 卷煙 吸煙者는 7年の 壽命減縮이 있고, 1日 40개피의 吸煙者는 12年の 壽命減縮이 있다고 推算하고 있다.

本 調査結果 吸煙과 壽命과의 關係에 대해 그릇된 知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18.9%에 이르러 吸煙이 壽命을 短縮시킨다는 事實을 學生들에게 일깨워 주고 特別히 吸煙하는 學生들에게 啓蒙할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吸煙과 健康에 關한 知識水準」에서 吸煙經驗群보다는 非吸煙群에서 知識水準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그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吸煙과 關聯있는 知識에 더욱 關心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담배의 有害함을 알고 있기에 담배를 안피우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糾明되어야 할 課題라고 생각한다.

3. 吸煙者의 行爲分析

1) 吸煙經驗者의 처음 吸煙動機

吸煙經驗이 있는 學生 761名에 있어서 吸煙을 始作하게 된 動機를 보면 <表 3-1>과 같이 「好奇心에서」가 가장 많아 59.7%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의 勸誘에 의해서」가 19.7%, 「反抗心에서」(7.1%), 「단지 재미와 快樂으로」(6%)의 順으로 나타났다.

他 調査 結果를 보면 任⁷⁾(1976)은 學生들의 吸煙動機를 好奇心이 51.6%, 친구의 誘惑이 27.6%로 報告하였고, 趙¹¹⁾(1973)는 好奇心이 30.8%, 친구의 誘惑이

表 3-1. 吸煙經驗者의 처음 吸煙動機

區	分	No.	%
好奇心에서		454	59.7
친구의 勸誘에 의해서		150	19.7
어른이 된 기분에서		10	1.3
멋이 있어 보여서		19	2.5
男子답게 보이려고		20	2.6
反抗心에서		54	7.1
단지 재미와 快樂으로		46	6.0
其他		8	1.1
計		761	100.0

表 3-2. 吸煙經驗者의 처음 吸煙時期 및 場所

區	分	No.	%
처음 吸煙時期			
國民學校		111	14.6
中學校 1學年		30	3.9
" 2學年		112	14.7
" 3學年		240	31.5
高等學校 1學年		180	23.7
" 2學年		88	11.6
처음 吸煙場所			
自己房		178	23.3
친구집		173	22.7
화장실		75	9.9
野 外		282	37.1
遊興 및 娛樂場所		8	1.0
補菓店·粉食집		10	1.3
其他		35	4.7
計		761	100.0

17.8%, 閔과 李⁴⁾(1976)는 好奇心 41.7%, 친구의 誘惑 36.3%로 各各 報告하여 水準의 差異는 있으나 모든 調査에서 好奇心과 친구의 勸誘나 誘惑이 共通의 原因으로 吸煙動機로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2) 吸煙經驗者의 처음 吸煙時期 및 場所

吸煙을 始作하게 된 時期로는 「中學校 3學年」이 가장 많아 34.7%로 나타났다<表 3-2 參照>.

다음으로 많은 時期는 「高等學校 1學年」이 23.7%, 「中學校 2學年」(14.7%)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趙¹¹⁾(1973)는 「中學校 3學年」(34.7%), 「高等學校 2學年」(15.4%), 「國民學校」(12.7%)의 順으로 報告하였다. 各 報告書에서 共히 「中學校 3學年」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吸煙하게 된 場所로는 「野外」가 37.1%로 가장 많았고 「自己房」(23.3%), 「친구집」(22.7%), 「화장실」(9.9%)의 順이었다. 이처럼 「野外」가 처음 吸煙한 場所로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道風이나 修學旅行 또는 친구들과끼리 野遊會등을 갔을 때 卽 선생님이나 父母의 保護로부터 벗어났을 때 처음 吸煙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過去 吸煙者의 吸煙中斷理由

過去에는 吸煙을 해 본 經驗이 있으나 現在는 피우지 않는 過去 吸煙者 375名의 경우, 吸煙을 中斷한 理由를 보면 <表 3-3>과 같다.

表 3-3. 過去 吸煙者의 吸煙中斷理由

區	分	No.	%
罰이나 注意를 받아서		5	1.3
담배의 害로움을 알아서		136	36.3
친구의 忠告로		10	2.7
父母, 親戚, 兄의 忠告로		13	3.4
별 興味가 없어서		199	53.1
宗教的 理由로		12	3.2
計		375	100.0

表 3-4. 現在 吸煙者의 主된 吸煙場所

區	分	No.	%
自己房		136	35.2
친구집		48	12.4
화장실		55	14.2
野 外		92	23.8
遊興 및 娛樂場所		8	2.1
製菓店 · 粉食집		5	1.4
場所와 無關		42	10.9
計		386	100.0

即 過半數 以上(53.1%)이 吸煙을 해 본 結果, 吸煙에 對해 別 興味가 없기 때문에 吸煙을 中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6.3%는 담배의 害로움을 알기 때문에 中斷했다고 應答하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禁吸教育에 있어서 吸煙이 健康에 미치는 危害를 強調하는 것이 대단히 重要的 教育內容이 될 것으로 思料된다.

4) 現在 吸煙者의 主된 吸煙場所

現在 吸煙을 하고 있는 386名에 있어서 主로 吸煙하는 場所로는 「自己房」이 가장 많아 35.2%로 나타났다.

〈表 3-4〉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다음으로는 「野外」(23.8%)였으며 「화장실」(14.2%), 「친구집」(12.2%)의 順이었다.

趙¹¹⁾(1973)의 研究에서는 「자기집」(47.9%), 「친구집」(22.3%), 「山」(19.9%)의 順이었고, 崔와 朴¹⁴⁾(1980)은 「자기방」(40.5%), 「遊興場」(33.4%), 「친구집」(11.7%)의 順으로 報告하여 共に 「自己房」이 一般的인 吸煙場所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調查對象者들의 年齡이 吸煙이 禁止되고 있는 時期이므로 自己房이 가장 安全한 場所로서 擇하여 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앞으로 吸煙이 學生들 사이에 더욱 習慣의으로 될 憂慮가 큰 것으로

表 3-5. 現在 吸煙者의 하루 吸煙量

區	分	No.	%
1~2 개피		79	20.5
3~4 개피		103	26.7
5~10 개피		121	31.3
11~15 개피		42	10.9
16 개피 以上		41	10.6
計		386	100.0

Mean=7

로 思料된다.

5) 現在 吸煙者의 하루 吸煙量

現在 吸煙者 가운데 하루 「5~10개피」를 피우는 學生이 가장 많아 31.3%를 차지하고 있다(表 3-5 參照).

또한 「3~4개피」가 26.7%, 「1~2개피」가 20.5%이며, 하루 「16개피以上」 피우는 學生도 10.6%가 되어 하루 平均 吸煙量이 7개피로 나타났다.

趙¹¹⁾(1973)는 하루 1개피가 17.4%, 3개피가 16.9%, 한갑 程度가 5.9%로 報告하여 本 調查와 比較해 볼 때 하루 吸煙量이 本 調查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eade와 Wald³⁰⁾(1977)는 年齡을 考慮하지 않고 하루 消費하는 量을 基準하여 하루 15개피 以下の 吸煙을 하는 경우를 가벼운 吸煙(Light-Smoking), 하루 15개피 以上の 吸煙하는 경우를 過度吸煙(Heavy-Smoking)으로 分類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本 對象者中 過度吸煙者(Heavy Smoker)가 現在 吸煙者 가운데 10.6%를 占하는 것으로 解釋되어 그들에 對한 將來의 健康問題는 深刻한 것으로 思料된다.

6) 現在 吸煙者의 吸煙時期 및 吸煙時 느끼는 氣分

現在 吸煙者 가운데 「特別한 理由없이 複合的인 경우」 吸煙하는 學生이 37%로서 首位였다. 〈表 3-6〉에서와 같이 「친구와 어울릴 때」가 23.1%, 「혼자 심심할 때」(13.2%), 「마음이 不安할 때」(8.8%)의 順으로 主로 吸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吸煙動機에서도 「친구의 勸誘」가 比較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친구와 어울릴 때 主로 吸煙하는 것으로 보아 吸煙에 있어서 친구의 影響이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된다. 그 影響에 대한 仔細한 研究는 ‘吸煙行爲 關聯 要因分析’에서 알아 보기로 한다.

한편 吸煙을 할 때 「맛이 좋고 氣分이 좋다」고 느끼는 學生이 69.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別 氣分이 없다」가 17.1%, 「맛이 쓰고 기침이 나지만 좋은 취한

表 3-6. 現在 吸煙者의 吸煙時期 및 吸煙時 느끼는 氣分

區 分	No.	%
주로 吸煙하는 경우		
마음이 不安할 때	34	8.8
혼자 심심할 때	51	13.2
친구와 어울릴 때	89	23.1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28	7.3
마음이 不安하거나 친구와 어울릴 때	9	2.3
혼자 심심하거나 친구와 어울릴 때	18	4.7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혹은 친구와 어울릴 때	14	3.6
특별한 이유없이 複合的인 경우	143	37.0
吸煙時 느끼는 氣分		
맛이 좋고 氣分이 좋다	268	69.4
맛이 쓰고 기침이 나지만 좋은 척 한다	40	10.4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12	3.1
별 기분이 없다	66	17.1
計	386	100.0

表 3-7. 담배의 求得源

區 分	No.	%
自身이 산다	286	74.1
친구에게 얻는다	87	22.5
其 他	13	3.4
計	386	100.0

다」가 10.4%의 順으로 나타났다.

本 調査結果 現在 吸煙하고 있는 學生 中에서 이미 「담배의 맛이 좋고 氣分이 좋다」는 學生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들의 吸煙習慣이 固着될 憂慮가 크므로 禁煙教育을 통해 그들의 習慣이 固着되는 것을 事前에 豫防해야 하겠다.

7) 담배의 求得源

現在 吸煙者中 담배를 「自身이 直接 산다」는 學生이 越等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74.1%였다 <表 3-7 參照>.

나머지는 친구에게 얻거나 아버지, 할머니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自身이 直接 담배를 購入하여 피우는 學生이 높은 것으로 보아 吸煙에 對한 陰性的인 態度가 最近의 여러 自律的 制度變化와 더불어 점차 開放的인 態度로 變化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表 3-8. 吸煙習慣 및 吸入程度

區 分	No.	%
끝까지 피운다		
깊게 吸入	218	56.5
얕게 吸入	85	22.0
半程度 피운다		
깊게 吸入	33	8.5
얕게 吸入	50	13.0
計	386	100.0

表 3-9. 父母의 吸煙事實 認知程度

區 分	No.	%
어머니만 안다	91	23.6
아버지만 안다	7	1.8
모두안다	146	37.8
모두 모른다	142	36.8
計	386	100.0

8) 吸煙習慣 및 吸入程度

現在 吸煙하고 있는 學生가운데 담배를 「끝까지 피우면서 깊게 吸入」하는 學生이 過半數 以上(56.5%)으로 나타났다.

<表 3-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끝까지 피우면서 얕게 吸入」하는 學生은 22%, 「半程度 피우면서 얕게 吸入」하는 學生이 13%로 나타났다.

朴⁵⁾(1978)의 「吸煙과 健康」에서 紹介한 Waring과 Wynder의 健康을 爲한 吸煙法을 보면 煙氣를 깊게 들여마시지 말며 食事後에 담배를 피울 것과 卷煙의 半以上을 피우지 말 것 (後半部에는 前半部보다 니코틴과 타르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을 當부하고 있다.

本 調査結果로는 健康에 害를 끼치는 吸煙을 하고 있는 學生이 半數以上(87%)인 것으로 보아 尙차 學生들의 健康을 爲한 禁煙教育이 하루 빨리 實施되어야 하겠다.

9) 父母의 吸煙事實 認知程度

學生의 吸煙事實을 父母가 어느 程度 알고 있는지에 對해서는 「父母 모두 안다」 「어머니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의 경우가 63.2%로 나타나 <表 3-9>와 같은 結果를 보였다.

美國 17,8歲 男學生의 경우 93.6%가 「父母 모두 알고 있다」로 나타난 것³⁹⁾에 比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가 37.8%로 낮게 나타난 것은 社會的 價習의 差異 때문

表 3-10. 父母의 認知有無에 따른 訓育程度

區 分	No.	%
안 다		
注意나 說明은 못들었다	11	2.8(4.5)
單純한 꾸지람만 들었다	52	13.5(21.3)
호되게 야단 맞았다	36	9.3(14.8)
담배의 害로움을 알려주었다	145	37.6(59.4)
小 計	244	63.2(100.0)
모른다	142	36.8
計	386	100.0

表 3-11. 校內에서의 摘發經驗有無와 그 後學生의 行動變化

區 分	No.	%
摘發된 經驗있다		
당분간 안 피웠다	1	0.3(0.9)
적게 피웠다	37	9.6(34.9)
繼續 피웠다	65	16.8(61.3)
더 많이 피웠다	3	0.8(2.9)
小 計	106	27.5(100.0)
摘發된 經驗없다	280	72.5
計	386	100.0

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現在 吸煙者中 37.8%는 「父母가 모두 알고 있다」고 應答하고 있어 父母가 學生의 吸煙事實을 알고 있으면서도 特別한 指導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解釋된다.

10) 父母의 認知與否에 따른 訓育程度

父母가 學生의 吸煙事實을 알고 있는 경우 父母가 「담배의 害로움을 알려 주었다」가 59.4%로 가장 많았고(表 3-10 參照). 그리고 「單純한 꾸지람을 한 경우」는 21.3%, 「호되게 야단친 경우」는 14.8%로 나타났다.

父母는 子女의 吸煙에 대해 무조건 야단만 치는 것 보다는 吸煙의 人體有害성에 關하여 理解할 수 있도록 說明해 줄 수 있어야 한 것이다.

따라서 거의 大衆化되어 있는 電波媒體를 통한 廣範圍한 禁煙教育이 切實히 要請된다.

11) 校內에서의 摘發經驗有無와 그 後 學生의 行動變化

現在 吸煙하고 있는 386명 가운데 校內에서 摘發된 經驗이 있는 學生이 27.5%였다.

<表 3-11>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校內에서 摘發된 經驗이 있는 學生中에서 그 後에도 繼續 吸煙한 경우가 가장 많아 61.3%였고, 적게 피운 學生은 34.9%이며, 당분간 안피운 學生은 0.9%에 不過하였다.

위의 結果로 미루어 一但, 吸煙을 하기 始作하면 끊기 어려운 吸煙을 學校에서 學生을 摘發하여 處罰함으로써 行動을 變化시키기는 힘든 것이다. 따라서 吸煙하는 學生들을 學校에서나 一般社會, 심지어는 家庭에서조차 不良學生으로만 생각지 말고 아직 吸煙의 害毒에 對해서도 잘모르는 學生들에게 理解하기 쉽고 說得力 있는 教育 프로그램이 要請된다.

4. 吸煙行爲 關聯 要因分析

1) 父母의 子女에 對한 關心度에 따른 吸煙行爲

<表 4-1>에서와 같이 父母의 子女에 대한 關心度가 높을 수록 吸煙하는 경우가 減少되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統計의으로도 매우 有意性이 있다($p < 0.01$).

다시 말해서 父母가 子女에 對해 「매우 無關心한 경우」는 86.7%가 吸煙하였고, 「보통의 경우」는 63.1%, 「매우 關心이 있는 경우」는 55.6%로 나타나 父母가 無關心할수록 子女의 吸煙은 增加現象을 보이고 있다.

위의 結果로서 父母가 子女들의 家庭教育이나 生活態度에 重大한 影響을 미친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다.

2) 父母의 吸煙狀態에 따른 吸煙行爲

父母의 吸煙有無가 子女들의 吸煙行爲에 影響을 미

表 4-1. 父母의 子女에 對한 關心度에 따른 吸煙行爲

區 分	매우無關心하다		無 關 心 하 다		보 통 이 다		關 心 이 있 다		매우關心이었다	
	No.	%	No.	%	No.	%	No.	%	No.	%
吸 煙 行 爲	13	86.7	25	80.6	149	63.1	299	59.7	275	55.6
非吸煙行爲	2	13.3	6	19.4	87	36.9	202	40.3	220	44.4
計	15	100.0	31	100.0	236	100.0	501	100.0	495	100.0

$p < 0.01$

表 4-2. 父母의 吸煙狀態에 따른 吸煙行爲

區 分	아 버 지 만 吸 煙		어 머 니 만 吸 煙		父 母 모 두 吸 煙		父 母 모 두 吸 煙 안 함	
	No.	%	No.	%	No.	%	No.	%
吸 煙 行 爲	512	64.1	9	64.3	35	74.7	205	49.0
非 吸 煙 行 爲	287	35.9	5	35.7	12	25.3	213	51.0
計	799	100.0	14	100.0	47	100.0	418	100.0

p<0.01

表 4-3. 손위 兄弟의 吸煙狀態에 따른 吸煙行爲

區 分	吸 煙		非 吸 煙		非 該 當	
	No.	%	No.	%	No.	%
吸煙行爲	350	65.2	199	51.8	212	59.4
非吸煙行爲	187	34.8	185	48.2	145	40.6
計	537	100.0	384	100.0	357	100.0

p<0.01

表 4-4. 飲酒經驗에 따른 吸煙行爲

區 分	有		無	
	No.	%	No.	%
吸煙行爲	717	67.3	44	20.8
非吸煙行爲	349	32.7	168	79.2
計	1,066	100.0	212	100.0

p<0.01

치는가를 알아본 結果는 <表 4-2>와 같다.

即「父母 모두 吸煙을 안하는 경우」보다는「모두 吸煙하는 경우」에 있어서 學生들이 吸煙하는 傾向이 높게 나타났다(p<0.01). 「父母가 모두 吸煙을 안 하는 경우」의 子女의 吸煙行爲는 49%였으나 「父母가 모두 吸煙하는 경우」에서는 子女의 吸煙行爲가 74.7%로 높게 나타나 父母의 吸煙狀態가 學生의 吸煙行爲에 影響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父母의 吸煙狀態는 學生들의 吸煙行爲에 影響을 주는 要因이 되는 것으로 思料된다.

3) 손위 兄弟의 吸煙狀態에 따른 吸煙行爲

兄의 吸煙狀態가 과연 學生들의 吸煙行爲에 影響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結果 <表 4-3>과 같이 나타나 兄이 吸煙을 하는 경우가 兄이 吸煙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學生들의 吸煙行爲에 影響을 주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p<0.01).

다시 말해서「兄이 吸煙하는 경우」그중 65.2%가 吸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兄이 吸煙을 안하는 경우」는 그 가운데 51.8%가 吸煙을 하고 있으며 結局兄

의 吸煙狀態가 學生들의 吸煙行爲에 影響을 주는 要因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Morris³¹⁾(1970)는 그의 研究에서 高等學生들은 친구들과 先輩, 담배피우는 兄弟들과 어울리는 것이 吸煙하는 強한 動機가 된다고 하였으며, Lanese²⁷⁾(1972)는 兄이 吸煙하는 경우 34.3%가 吸煙을 하고, 兄이 吸煙을 안하는 경우 11.5%가 吸煙을 하는 것으로 報告하여 本調査 結果보다 낮은 水準을 보였다.

4) 飲酒經驗에 따른 吸煙行爲

個人的 飲酒經驗有無가 吸煙行爲에도 影響을 주리라 생각되어 調査한 結果 <表 4-4>와 같이 飲酒經驗이 있는 群에서 吸煙行爲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統計적으로도 매우 有意하였다(p<0.01).

飲酒經驗이 있는 學生中에는 67.3%가 吸煙하였고, 飲酒經驗이 없는 學生中에서는 20.8%가 吸煙을 한 것으로 보아 飲酒經驗의 有無가 學生들의 吸煙行爲에 影響을 주는 要因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趙¹¹⁾(1973)의 研究에서는 飲酒經驗이 있는 學生中에서 79.3%가 吸煙經驗者였고 飲酒經驗이 없는 學生中에서는 55.1%가 飲酒經驗者인 것을 報告하여 本調査 結果와 같은 傾向을 보이고 있다.

5) 大學進學與否 및 學級內 成績에 따른 吸煙行爲

大學進學 與否에 따른 吸煙行爲를 보면 大學進學 豫定者보다는 非進學豫定者 가운데 吸煙行爲를 나타낸 學生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統計적으로도 有意하였다<表 4-5 參照>.

또한 學級內 成績別로 學生들의 吸煙水準을 보았다. 지난 學期 學級內 成績이 15% 以內인 경우는 「上位圈」 15~50% 以內는 「中位圈」 50% 밖은 「下位圈」으로 分類하여 그 基準을 定하였다. 그 結果 大學進學 豫定者와 非進學豫定者 모두의 경우 學級內成績이 上位圈에서 下位圈으로 갈수록 吸煙하는 傾向이 增加하고 있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即 大學進學 豫定者의 경우는 上位圈에서 48.9%, 中位圈에서 58.1%, 下位圈에서는 76.2%였으며 非進學豫定者의 경우는 上位圈에서 50%,

表 4-5. 大學進學與否 및 學級內 成績에 따른 吸煙行爲

區 分	大學進學與否別*		大 學 進 學 豫 定				非 進 學 豫 定									
	學校成績別**		上位圈	中位圈	下位圈	小 計	上位圈	中位圈	下位圈	小 計						
	No.	%	No.	%	No.	%	No.	%	No.	%						
吸 煙 行 爲	171	48.9	366	58.1	176	76.2	713	58.9	5	50.0	17	65.4	26	83.9	48	71.6
非 吸 煙 行 爲	179	51.1	264	41.9	55	23.8	498	41.1	5	50.0	9	34.6	5	16.1	19	28.4
計	350	100.0	630	100.0	231	100.0	1,211	100.0	10	100.0	26	100.0	31	100.0	67	100.0

*p<0.05 **p<0.01

表 4-6. 校友集團內的 吸煙程度가 個人의 吸煙行爲에 미치는 影響

校友吸煙指數	0~0.20	0.21~0.40	0.41~0.60	0.61~0.80	0.81~1.00	計	
						No.	%
吸煙 經驗 行爲	36.9	59.5	86.3	88.1	91.5	761	59.5
現在吸煙行爲	(3.4)	(15.2)	(60.0)	(57.6)	(75.5)	(386)	(30.2)
過去吸煙行爲	(33.5)	(44.3)	(26.3)	(30.5)	(16.0)	(375)	(29.3)
非 吸 煙 行 爲	63.1	40.5	13.7	11.9	8.5	517	40.5
計 (%)	100.0	100.0	100.0	100.0	100.0	1,278	100.0

p<0.01

中位圈에서 65.4%, 下位圈에서는 83.9%가 吸煙을 한 것으로 보아 學級內 成績이 낮은 群일수록 吸煙하는 傾向이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趙¹³⁾(1973)의 研究에서는 지난 學期 平均成績이 「60點以下」의 學生群에서는 71.4%가 吸煙經驗이 있으며, 「80點以上」의 學生群에서는 42.7%가 吸煙經驗을 보여 本調査 結果와 같은 傾向을 보였다.

Dunn¹⁹⁾(1967)은 學業成績과 吸煙은 逆相關을 보이는 것으로 報告한 바 있고, Stepney³⁶⁾(1980)는 이른 時期의 吸煙은 實際 學業成就度의 낮은 水準과 關係가 있다고 하였다.

6) 校友集團內的 吸煙程度가 個人의 吸煙行爲에 미치는 影響

Homans의 集團力學理論에 立脚하여 볼 때 한 個人의 吸煙은 적어도 그 個人이 屬해 있는 校友集團의 構成員과 相互影響을 주고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本 調査의 研究對象인 吸煙行爲도 校友集團 構成員의 吸煙에 絕對的인 影響을 받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이러한 假定下에 여기에서 使用한 '校友吸煙指數'는 校友中 吸煙하는 사람 數를 指數化한 것으로 '校友吸煙指數'가 높을 수록 친구가운데 吸煙하는 사람수가 많은 것을 意味한다.

〈表 4-6〉을 보면 '校友吸煙指數'가 增加할수록 다시 말해서 친구들中 吸煙하는 學生數가 많을수록 吸煙行

爲도 增加하는 趨勢를 보였으며, 現在 吸煙하고 있는 學生도 增加하는 傾向을 보였다. 卽 '校友吸煙指數'가 0~0.2의 경우의 現在 吸煙行爲는 3.4%였고, 0.21~0.04의 경우 15.2%, 0.41~0.60의 경우는 60%가 현재 吸煙을 하고 있으며, 0.61~0.80에서는 57.6%, 0.81~1.00의 경우는 75.5%로 나타났다.

〈圖表 1〉을 통해 보면 平均 校友吸煙指數가 現在 吸煙者의 경우는 0.69로 나타나 주위의 친구들 10명 가운데 7명은 吸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圖表에서의 凸點은 두사람 사이의 吸煙에 關한 影響力을 表示한 것으로 現在 吸煙을 하고 있는 個人은 주위의 친구 10名中 같이 吸煙을 하고 있는 7名으로부터는 隱然中에 影響力을 받고 있으나 非吸煙行爲로 부터는 아무런 影響力도 받지 않고 있다.

過去 吸煙者의 경우, 平均 校友吸煙指數는 0.29로서 周위의 친구들 10명中 3명이 吸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過去吸煙行爲를 보이고 있는 個人은 周위의 친구 10名中 吸煙을 하고 있는 3名으로부터는 「담배를 繼續 피워보라」는 內容의 影響力을 받고 있으나 非吸煙行爲로 부터는 아무런 影響力을 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非吸煙者의 平均 校友吸煙指數는 0.18로서 周위의 친구들 10名中 2名은 吸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非吸煙行爲를 나타내는 個人은 周위의 친구 10名中 吸煙하는 2名으로부터는 「담배를 피워보라」는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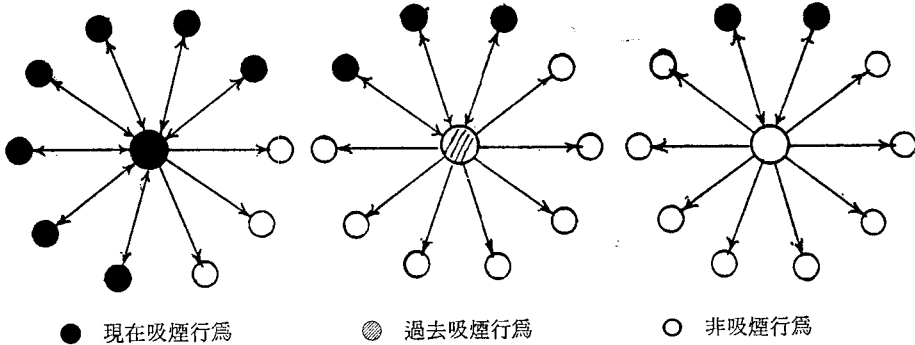
〈圖表 1〉 校友集團內的 吸煙行爲 影響分析度

平均 校友吸煙指數：

現在吸煙行爲 = 0.69

過去吸煙行爲 = 0.29

非吸煙行爲 = 0.18



용의 影響力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8名의 非吸煙者들
로 부터는 아무런 影響力를 받지 않고 있다.

위의 結果로서 校友集團內的 吸煙程度는 그 集團속
에 있는 個人的 吸煙行爲에 커다란 影響을 주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IV. 結 論

서울市內 一部 高等學校 學生들의 吸煙에 關한 經驗
과 行爲, 吸煙하지된 動機 및 吸煙과 關連된 要因을 과
악하기 위하여 1982年 9月 15日부터 10月 15日까지 本
調查를 實施하였다. 調查對象은 서울市內에 위치한 男
子 高等學校中 4個校를 任意로 選定하여 이를 晝·夜
間 2個校로 各各 나눈후, 全學年中 2學年을 選定하여
最終 標本單位로서 6個學級씩을 單純無作爲로 抽出하
였으며 이렇게 하여 抽出된 最終 標本單位인 各 學校에
속해있는 모든 學生을 調查 標本對象으로 하였다. 調
查方法은 本 研究者가 미리 준비한 設問紙에 依據하여
各 應答者가 直接 無記名으로 記人토록 하고 本 研究者
가 直接 回收하였다. 本 調查 資料를 分析하여 얻은 結
論은 다음과 같다.

1. 調查 對象者의 吸煙實態

① 本 調查의 總 應答者 1,278名中 現在 吸煙者가
30.2%, 過去 吸煙者가 29.3%로서 吸煙經驗者는 59.5
%로 나타났다.

1973年의 高等學生들의 現在 吸煙率 26.5%와 1976
年의 32.2%와 比純해 보면 年度別로 變動이 없는것으
로 나타났다나 靑少年期에 있는 調查對象學生들의 吸
煙率이 줄지 않는다는 事實은 우리 社會의 커다란 靑
少年 問題로 남아 있다 하겠다.

② 晝·夜間別 吸煙經驗率은 晝間보다는 夜間에서 越

等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晝·夜間 學校가 갖는 特
性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③ 晝·夜間 學生의 年齡別 吸煙率을 보면, 17, 18, 19
세에서 夜間의 現在 吸煙率이 晝間보다 높게 나타나 같
은 年齡에서도 晝間보다는 夜間학생이 吸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④ 父母와의 同居與否에 따른 吸煙經驗率은 個人的
特性에 影響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父母와 함
계 사는 경우보다는 父母와 떨어져 사는 集團 즉, 父
母의 保護로부터 벗어난 集團에서 吸煙率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p < 0.01$).

2. 吸煙에 對한 態度 및 吸煙과 健康에 대한 知識程 度

① 調查 對象者들의 未成年期 吸煙에 對한 態度는 肯
定的인 態度보다는 否定的인 態度를 보인 學生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肯定的인 態度를 보이는 學
生들의 百分率(17.4%)이 現在 吸煙率(30.2%)보다 낮
다는 점에서 상당한 學生이 吸煙에 대한 態度와 吸煙
行爲間의 葛藤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吸
煙에 대해 好意的인 態度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校
友間의 問題, 學校內的 吸煙에 대한 분위기의 影響을
받고 있는 것으로 解釋되어 學生善導의 問題點을 提起
하고 있다.

② 禁煙教育을 받은 經驗이 있는 學生가운데 禁煙教
育의 必要性에 대해 半數以上(51.8%)이 否定的인 態
度를 보여주고 있음은 禁煙에 대한 既存의 教育에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③ 吸煙하는 學生들에 대한 學校의 團束이 必要하다
는 事實에 대하여 否定的인 態度를 보이는 學生이 50.
6%나 된다는 것은 絶對禁煙였던 學生들의 吸煙에 대
한 認識이 상당한 水準에서 달라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④ 吸煙이 人體에 「有害하다」고 알고 있는 學生은 98.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에 대한 知識源으로는 「Radio, T.V.」가 2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學校先生님」(20.9%)으로 나타났다.

⑤ 담배가 人體에 有害하다고 應答한 學生中 담배연기속의 人體有害成分에 대해 具體적으로 알고 있는 學生이 71.8%로 比較的 높게 나타났고, 그중 「니코틴」 하나만을 아는 學生이 82.9%로서 가장 많았다($p < 0.01$).

⑥ 吸煙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知識度는 具體적인 疾病名을 알고 있는 學生이 65.6%로 높게 나타났고, 疾病名을 알고 있는 경우 85.5%가 呼吸器系疾患에 대해 알고 있었다.

3. 吸煙者의 行爲分析

① 吸煙經驗이 있는 學生 761名에 있어서 吸煙을 始作하게 된 動機로는 「好奇心에서」가 가장 많았고(59.7%), 다음이 「친구의 勸誘에 의해서」(19.7%)였다.

② 처음 吸煙한 時期로는 「中學校 3學年」이(31.5%) 가장 많았고, 이 時期를 前後하여 吸煙을 始作한 學生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 時期에 있어서 특히 父母와 先生님의 指導와 關心이 요청된다.

또한 처음 吸煙한 場所로는 「野外」가 가장 많았고, 「자기방」, 「친구집」의 順으로 나타났다.

③ 過去 吸煙者의 吸煙 中斷 理由는 過半數 以上(53.1%)이 吸煙에 대해 「별 흥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36.3%가 「담배의 해로움을 알기 때문」이라고 應答하였다.

④ 現在 吸煙者의 하루 平均 吸煙量은 7개피였으며, 「하루 16개피 以上」을 吸煙하는 學生이 10.6%로 나타났다.

⑤ 現在 吸煙者가운데 담배를 「끝까지 피우면서 깊게 吸入」하는 學生이 過半數 以上(56.5%)으로 나타나 장래 學生들의 健康을 위한 禁煙指導가 시급히 요청된다.

⑥ 現在 吸煙者中 校內에서 摘發된 經驗이 있는 學生이 27.5%였으나, 그후 계속 吸煙한 學生이 61.3%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學校에서 摘發하여 指導하는 方法은 學生들의 行動을 變化시키기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學生들을 위한 理解하기 쉽고 說得力있는 教育프로그램이 요청되고 있다.

4. 吸煙行爲 關聯 要因分析

① 父母 「모두 吸煙하는 경우」가 「모두 吸煙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學生들이 吸煙하는 傾向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兄이 吸煙하는 경우」는 65.2%의 學生

이 吸煙하는 것으로 나타나 父母와 兄의 吸煙狀態가 學生들의 吸煙行爲와 關聯되는 要因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② 校友集團內의 「校友吸煙指數」가 增加할수록 吸煙行爲도 增加하는 傾向을 보여 校友集團內의 吸煙이 個人의 吸煙行爲에 커다란 影響을 주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參 考 文 獻

- 1) 權彝赫：最新保健學，新光出版社，1978，p. 429.
- 2) 金相淑：「農村住民의 吸煙實態調查」，最新醫學，第19卷 2號，1976，pp. 214-220.
- 3) 김영실，이찬세：담배의 有害성에 대한 文獻의 考察，결핵 및 호흡기질환，제24권 3호，1977，pp. 199-130.
- 4) 민병근，이길홍：韓國靑少年의 喫煙樣相，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1976.
- 5) 朴淳永：吸煙과 健康，人間科學，第2卷 6號，1978 pp. 465-470.
- 6) 朴衡圭：靑少年의 飲酒 및 喫煙에 대한 社會政策的 考慮，대한의학협회지，제10권 8호，1967，pp. 545-548.
- 7) 任台彬：高等學生의 吸煙實態調查 및 그 先導方案에 관한 研究，忠南大學校 教育大學院，1976.
- 8) 專賣廳：1980年 담배 消費量，專賣廳販賣部 1980.
- 9) 정규철：吸煙이 健康에 미치는 影響，中央醫學，第39卷 5號，1980，pp. 319-322.
- 10) 鄭文鎬，金鍾石：“一部地方公務員들의 吸煙 및 飲酒 實態調查”，大韓保健協會誌，第7卷 1號，1981，pp. 21-31.
- 11) 趙相文：“韓國高等學生들의 吸煙에 關한 調查研究 公衆保健雜誌，第10卷 1號，1973，pp. 73-80.
- 12) 崔三燮，金敬姬：“一部都市男子大學生들의 吸煙 實態에 關한 調查”，“大韓保健協會誌，第5卷 1號，1979，pp. 41-54.
- 13) 崔巨海：禁煙醫學，대한의학협회지，제10권 8호，1967，pp. 577-580.
- 14) 최의순，박재순：“서울市內 女大生의 吸煙實態調查”，中央醫學，第38卷 5號，1980，pp. 297~306.
- 15) 한국생산성본부：전국제조연조 소비실태조사보고서，산업경제연구소，1971.
- 16) Bajda, L. : A survey of the smoking habits of students of Newton High School- A cooperative project, Amer. J. of Public Health, Vol. 54,

- No. 3, 1964, pp. 441-446.
- 17) Bower, H.M. : *Old Age in Western Society*, *Med. J. Aust.*, Vol. 2, 1964, pp. 325-332.
 - 18) Chen, T.L., Rakip, W.R. : *The Effect of the teachers' smoking behavior on their involvement in smoking education in the schools*, *J. of School Health*, Vol. XLV, No. 8, 1975, pp. 455-461.
 - 19) Dunn, D.F. : *Cigarettes and the college Freshman*, *J.A.M.A.*, Vol. 199, No. 1, 1967, pp. 77-80.
 - 20) Elegheleye, O.O., Femi-Pearse, D. : *Incidence and variables contributing to onset of cigarette smoking among secondary school children and medical students in Lagos, Nigeria*, *Brit. J. Prev. Soc. Med.*, Vol. 30, 1976, pp. 66-70.
 - 21) Eysenck, M.J., Torrant, M., Woolf, M. : *Smoking and personality*, *Brit. Med. J.*, Vol. 1, pp. 1456-1460.
 - 22) Hawthorne, V.M. : *Smoking & Health*, *J. Epi. Comm. H.*, Vol. 32, No. 4, 1978, pp. 260-266.
 - 23) Homans, G.C. : *The Human Group*, *Harcourt Brace and Company*, New York, 1950, p. 313.
 - 24) Horm, D. : *Current smoking among teenagers*, *Pub. H. Report*, Vol. 83, No. 6, 1968, pp. 458-460.
 - 25) Horn, D., Courts, F.A., Taylor, R.M., Solomon, E.S. : *Cigarette smok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Amer. J. Public Health*, Vol. 49, No. 11, 1959, pp. 1497-1511.
 - 26) Kelson, S.R., Pulella, J.L. and Otterland, A. : *The Growing Epidemic, A Survey of Smoking Habits and Attitudes toward Smoking among students in Grades 7 through 12 in Toledo and Lucas country Public Schools 1964 and 1971*, *Amer. J. Pub. H.*, Vol. 65, No. 9, 1975, pp. 923-938.
 - 27) Lanese, R.R., Banks, F.R., Keller, M.D. : *Smoking Behavior in a Teenage Population; A Multivariate Conceptual Approach*, *Amer. J. Pub. H.*, Vol. 62, No. 6, 1972, pp. 807-813.
 - 28) Larson, P.S., and Silvette, H. : *Tobacco; Experimental and clinical studies*, *William and Wilkins Co.*, 1968.
 - 29) Macmahon, B., Salber, E.J. : *Cigarette Smok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Related to social class and parental smoking habits*, *Amer. J. Pub. H.*, Vol. 51, No. 12, 1961, pp. 1780-1789.
 - 30) Meade, T.W., & Wald, N.J. : *Cigarette Smoking patterns during the working day*, *Brit. J. Prev. Soc. Med.*, Vol. 31, 1977, pp. 25-29.
 - 31) Morris, J.F., et. al. : *Smoking habits and attitudes of Oregon secondary school coaches*, *Amer. J. Pub. H.*, Vol. 60, No. 7, 1970, pp. 1271-1277.
 - 32) Pezer, V. : *Teachers' Habits and attitudes toward Smoking*, *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 Canadian Smoking and Health programs (Sept.)*, 1964.
 - 33) Salber, E.J., Goldman, E. : *Smoking habits of high school students in Newton, Massachusetts*, *New Eng. J. Med.*, Vol. 265, No. 20, 1961, pp. 969-974.
 - 34) Salber, E.J. : *Smoking teenagers*, *New York Acad. Med.*, Vol. 44, 1968, pp. 1521-1525.
 - 35) Seely, J.E. : *Digarette Smoking: Objective Evidence for Lung Damage in Teenagers*, *Science*, Vol. 172, 1971, pp. 741-743.
 - 36) Stepney, R. : *Smoking behavior: A psychology of the cigarette habit*, *Brit. J. Dis. Chest.*, Vol. 74, 1980, pp. 325-344.
 - 37) Taylor, I. : *Quoted in Lancet (Symposium)*, Vol. 1, 1963, pp. 493-494.
 - 38)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Summaries and Conclusions Smoking and Health*, *The American Cancer Society, Inc.*, 1968.
 - 39) Wynder, E.L., et. al. : *Experimental aspect of tobacco carcinogenesis*, *Dis. Chest*, Vol. 44, 1963, p. 337.